"더이상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라"

광주시민단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 촉구

"광복 74년,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한일 경제전쟁으로 친일 잔재 청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복 74년이 됐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제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일본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13~15세의 소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됐으나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로 오인 받아 평생을 사회적 냉대와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의 문제이지만 피해자들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993년부터 정부 차원의 인권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하는게 전부다. 광주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북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과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20만~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피해자가 숨졌을 때 장제비나 조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광주 18명, 전남 40명, 경기도 34명, 서울 27명, 인천 7명, 전북 20명 등 146명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법안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아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연구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광복된 땅에서도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광복 74년이 되도록 일제가 남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법 제정에 조속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계속되는 아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 뒤로 글귀가 적힌 노란 나비가 보이고 있다.

광주 남구노조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보이콧 재팬 동참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본의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한다.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전국에서 '보이콧 재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가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진정한 사죄를 하고 경제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노조 조합원 210명은 지난 9일 오후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관람했다. 노조는 10월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국 연길과 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본은 징용 노동자 학대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권을 능멸하고 있고, 사람을 물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천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다시 새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급박하게 진행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도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일제 잔재와 친일 부역자들의 식민주의적 발상이 청산되는 그 날까지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다시 한 번 맹세한다"고 말했다.

태풍 가니 다시 불볕더위…광주·전남 13개 시·군 폭염경보

태풍이 지나가자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13일 광주와 전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3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를 포함 나주·순천·광양·곡성·구례·담양·영광·영암·장성·장흥·함평·화순 등 광주·전남 13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들 시군의 13~14일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 수 있다는 의미다.

목포·여수·강진·고흥·무안·보성·신안(흑산도·홍도 포함)·완도·진도·해남 등 전남 10개 시군에는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13~14일 낮 최고기온을 △13일 32~34도 △14일 32~35도로 내다봤다.

실종 80대 남성,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80대 남성이 실종 이틀 만에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4분쯤 목포시 율도 2구 선착장 인근 해안가에서 시민이 변사자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변사자가 지난 10일 실종된 A씨(87)임을 확인했다.

율도에 살던 A씨는 10일 목포 시내 한 시장 부근에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A씨 발견 당시 바다에 표류하면서 쓸린 듯한 찰과상 외에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 저지른 6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만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상습폭행)로 김모씨(6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북구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채 옆자리 손님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의자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2년간 비슷한 범죄를 17차례 저질렀으며,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완도경찰서는 13일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6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완도 청산도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민 B씨(59)와 말다툼한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격분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툰 후 집에 돌아가서도 분이 풀리지 않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은 이날 경비정을 급파해 오후 9시3분쯤 피해자와 가족, 가해자 등 5명을 완도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B씨는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은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체포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11시40분께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당시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자 119로 신고했으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랑이하다 부하 폭행 파출소장 '대기발령'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의 한 파출소장이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관할지역 내 파출소장인 경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강남구에서 파출소 소속 직원 10여명과 회식을 가진 뒤 20대 순경급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를 겸한 1차 식사자리를 마친 뒤 술자리를 이어 가자고 요구하다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보고 받은 강남경찰서는 피해 경찰관과 A씨를 조사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격리를 위해 A씨를 대기발령했다"면서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